

아버지, 봉사, 가족에 대해 사랑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힘들게 수고하는데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 모든 곳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다. 아버지 앞에 직접 앉아 있거나 또는 천사채 형태로 여기에 와 있거나, 너희들은 그의 앞에 있다. 아버지는 자녀들 모두를 보고 있다. 한편으로 너희들은 이 만남을 축하하며 행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려는 열성과 열의를 갖고 있다. 온 사방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는 수백만 배, 수십억 배로 축하해 준다.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멀고 먼 데서, 온 사방 구석구석에서 왔듯이 밥다다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다. 누가 더 먼 곳에서 왔느냐? 아버지냐 너희들이냐? 너희들은 “저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에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반면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모두 비행기나 기차를 타야 하는 반면 아버지는 단지 수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희만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버지도 본래의 동반자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그의 동반자였던 브라민 자녀 영혼들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다. 아버지는 혼자 강림하지 않는다. 브라마는 브라민 자녀들과 함께 신성한 생을 태어난다. 즉, 그들은 함께 강림한다. 브라민들 없이는 아버지 혼자서 이 희생의 불을 지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바가 브라마를 통해 이 희생의 불과 브라민들을 창조했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너희들 모두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너희가 바바와 함께 2년을 지냈든 두 달을 지냈든, 너희 모두의 신성한 브라민 생을 축하한다. 이 신성한 생은 참으로 고귀하다! 아버지는 신성한 생을 받은 모든 브라민 영혼들의 반짝이는 행운의 별을 보며 아주 행복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와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생을 가진 브라민 자녀들! 와!”라는 노래를 부른다. 너희 모두 “와! 와! (경이롭다)”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는 너희를 경이로운 자녀들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알로키한 생일은 아주 독특하고 너희 자녀들 모두의 생일도 대단히 사랑스럽고 독특하다. 오직 아버지의 탄생인 자안티만 이렇다. 다른 누구도 이런 생일을 가져봤거나 무체인 분의 신성한 탄생과 같은 그런 생일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모든 영혼이 각자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지만, 무체인 분은 다른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야만 탄생을 한다.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태어난 적이 있느냐?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신봉자들이 쉬브 자안티로 축하해온, 참으로 독특한 생일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이 신성한 생의 중요한 의미를 안다. 비록 신봉자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들어온 대로 신을 높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여기며 계속 그것을 축하한다. 너희 자녀들은 단지 이것을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축하와 더불어 너희 스스로를 아버지와 똑같이 만들기도 한다. 너희는 알로키하고 신성한 탄생의 중요성을 안다. 다른 어떤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와 동시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쉬브 자안티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탄생과 더불어 그 자녀들의 탄생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축하했다. 이처럼 아버지의 탄생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자녀들의 신성한 탄생이기도 하다. 오직 이 탄생만이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한 생일일 수 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너희의 생은 다이아몬드처럼 된다. 너희 자녀들 모두가 이것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해준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가 어떻게 것처럼 대단한 중요성, 열성과 열의를 갖고 아버지의 신성한 탄생을 축하하는지에 대한 모든 소식을 계속해서 보고 듣는다.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의 용기에 대한 보답으로 밥다다는 계속 그들을 도와준다. 자녀들의 용기와 아버지의

도움이다.

오늘날 자녀들 모두의 사랑이 담긴, “이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와 대등해져야 해”라는 하나의 생각이 밥다다에게 자꾸자꾸 와 닿는다. 아버지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너희들 각자는 이런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면 누가 그렇게 되겠는가? 난 이랬었고, 지금은 이렇고, 계속해서 사이클마다 이렇게 될 것이다.”에 밀줄을 그어야 한다. 너희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 2중의 외국인들은 쉬바 자얀티를 축하하려고 왔다. 2중의 외국인인 너희들은 모두 손을 들어라! 밥다다는 2중의 외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열의가 세계의 단 한 구석도 빼놓지 않겠다는 것임을 본다. 바라트 출신인 자들은 봉사할 시간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나 2중의 외국인들은 바라트 출신인 자들보다 봉사할 시간을 덜 받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열성과 열의로 인해 그들은 봉사를 잘 해왔다는 걸 바바에게 증명했고, 계속 이것을 증명할 것이다. 바라트에서 시작된 온갖 다양한 전문분야에 봉사하는 그 봉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바바의 메시지를 전하기 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각 전문분야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직업분야가 더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봉사하는 이 방법을 만든 것은 아주 좋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오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속한 특별한 영혼들을 통해 아주 훌륭한 화려함이 생겼다. 너희는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렇지? 너희들은 전문분야에 봉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외에서 온 자들 역시 그들을 위한 수련회를 가짐으로써 좋은 그룹들을 여기에 데려왔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바라트 출신인 자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에 봉사할 기회를 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2중의 외국인들의 방법도 아주 좋다. 밥다다는 양쪽의 봉사가 다 마음에 든다. 둘 다 좋다. 자그디시 바이는 아주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외국에서 수련회와 대화 모임을 가진다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느냐? (모든 이가 함께 했습니다.) 바라트에서도 역시 모든 이가 함께 일했지만, 누군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건 좋다. 동료들과의 집회는 모든 이가 좋아한다. 두 가지 종류의 봉사 모두에서 너희들은 여러 유형의 영혼들을 가까이 데려올 기회를 가진다. 너희들은 그 결과가 마음에 든다, 그렇지? 수련회의 결과가 좋았느냐? 다양한 전문분야에 봉사한 결과도 역시 좋았다. 이 나라에서든 해외에서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바라트에서든 해외에서든, 봉사하려는 좋은 열의가 있다. 밥다다는 이기심 없이 진심으로 봉사함으로써 계속 전진하는 자들이 본인의 자선 계좌에 많이 저축하는 것을 본다. 자녀들 모두의 첫 번째 계좌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계좌이다. 둘째 계좌는 충족된 상태로 머물며 남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받는 축복의 계좌이고, 셋째 계좌는 요그육트하고 육티육트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봉사한 데 대한 보답으로서 자선의 계좌다. 밥다다는 계속 자녀들 모두의 이 세 계좌를 지켜본다. 자녀들이 세 계좌 모두에 저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그들 스스로 변함없이 쉬운 노력이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그들에게서 쉬운 노력을 위한 영감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다. 그것들이 쉬운 노력의 상징이다. 그들은 힘들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아버지, 봉사, 가족을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이 애쓰는 것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가 한결같이 쉬운 노력이하기를 바라는 고귀한 희망을 가졌다. 너희는 63생 동안 신봉의 길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애쓰고 방황해왔다. 이번 생은 너희가 애쓰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생이다. 너희가 여전히 오랫동안 계속 애를 쓴다면 합류시대의 축복을, 즉 사랑받음으로써 쉬운 노력이가가 되는 축복을 언제 차지하겠느냐? 이 시대가 끝날 때, 이 축복도 끝날 것이다. 그러니 이 영원한 축복을 가능한 한 빨리 차지해라. 어떤 과업이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과업이나 문제를 마치 버터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듯이 쉽게 극복해라. 너희 자녀들 중 몇몇의 게임을 볼 때, 밥다다는 재미도 있지만 또한 너희에게 자비심도 느낀다. 너희 자녀들 중 일부는, 자기 앞에 어떤 문제나 과업이 오면 때때로 그것이 얼굴에서 보인다. 너희의

얼굴이 약간 달라진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글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라고 한다. 너희에게 아무 장애도 없다면 어떻게 너희가 장애의 파괴자라는 칭호로 찬양될 수 있었겠느냐? 너희의 기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변했거나 피로함의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게 하지 마라. 왜 그래야 하겠느냐? 반 사이클 동안 승배되어 온 너희들의 살아 있지 않은 상들에 피로함이나 기분이 변한 기색이 나타나 있느냐?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은 항상 미소짓고 있다. 그 상들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것들은 너희의 형상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처럼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은 살아 있는 너희 모습의 기념물들이다. 이런 이유로 피로함, 즉 다른 말로는 짜증의 아주 작은 흔적조차도 없어야 한다. 밥다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가 한결같이 웃음 띤 얼굴을 좋아한다. 누가 쉽게 짜증내는 사람 앞에 가겠느냐? 그들은 먼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신봉자들은 넘치는 열의를 품고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상에게 온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살아 있는 형태로 무거워졌다면, 그것이 그들 마음에 들겠느냐? 이제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의 얼굴을 축복의 공여자 형태, 공여자의 모습으로 보고자 한다. 그것이 천사와 같고, 자비로우며 지칠 줄 모르는 쉬운 요기이고, 또한 쉬운 노력가로 보고자 한다. “아 그건 상황이 그랬거든요”라고 말하지 말아라. 상황이 어떻든 너희는 변함없이 미소 지으며 차분해야 한다. 진지함과 성숙함이 가벼움과 재미있는 것과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만일 어떤 문제나 과업 때문에 너희가 쉬운 노력가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갑자기 그들이 너희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겠느냐? 그것이 그들이 가져가는 너희의 모습일 것이다. 만일 언제든 어떤 이가 갑자기 너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너희 얼굴이 바바가 묘사한 그대로이게 해라. 공여자가 되어라. 가져가는 자가 되지 말고, 조건 없이 주는 자가 되어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며, 모든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에게 속하는 이들이다. 설령 어떤 이가 뭔가 나쁜 것을 준다해도, 너희는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 넓은 마음으로 공여자가 되어 그 사람에게 협조, 사랑, 힘을 주어라. 그 사람에게 너희의 단계를 통해 하나의 미덕을 선물로 주어라. 너희들은 모든 아버지들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자 큰 마음을 가진 분의 자녀들이다. 너희 마음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가외의 사랑이 나오게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랑의 힘으로 그 영혼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자들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작은 마음을 가졌느냐? 너희들은 수용하는 힘을 가졌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바다에 아주 많은 쓰레기를 내던져지지만, 바다가 그 쓰레기를 내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던지지 않는다. 너희는 지식의 대양이며 모든 힘의 대양인 분의 자녀인 주인들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밥다다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들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 대다수는 올해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지켜왔다. 언젠가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던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고 말해라.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자들은 한 손으로 박수를 쳐라 (손을 흔들어라). (모든 이가 손을 들었다.) 아주 좋다! 단지 그 손을 들지만 말고 너희 마음속의 결심이라는 손도 역시 들어라. 그 육신의 손을 드는 것은 쉽다. 너희의 마음속의 결심이라는 손은 너희를 한결같은 성공의 화신으로 만든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런 일은 일어나야 한다. 너희의 생각은 물론 긍정적인 것이다. 너희는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조차 없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길은 영원히 닫혀 있다. 너희는 그것을 닫는 방법을 아느냐? 아니면 폭풍이 불 때,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그것이 저절로 열리느냐? 그렇지 않는겠지? 너희는 방금 문을 닫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폭풍이 문을 열어버렸다. 그러니 문을 그렇게 대충 닫아두지는 말아라. 앗차.

2중의 외국인들의 축하행사는 좋았겠지? (지식을 가진 지 10년 이상인 400여 명의 2중의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명예를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다.) 너희는 그걸 즐겼느냐? 그걸 축하했고 또한 스스로 즐긴 자들은 손을 들어라! 판다바들도 역시 이것에 해당된다.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이나?

이것을 축하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나? 축하한다는 것은 그것이 된다는 뜻이다. 한결같이 이 왕관을 쓰고 지내라. 자신을 위한 노력과 봉사의 책임을 너희는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것은 그저 즐거움이다. 변함없이 봉사를 즐기는 왕관을 쓰고 있어라. 모든 이가 황금 “추니(금빛으로 빛나는 스카프 같은 천)”를 걸쳤다. 왜 너희 모두에게 황금 “추니”가 둘러져 있었느냐? 너희가 변함없이 황금시대의 단계, 은이 아닌 황금의 단계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화환도 걸었다. 화환을 두 개씩 목에 둘러쳤다. 너희는 어떤 두 화환을 두를 것이냐? 하나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목 둘레의 화환이 되는 것이다. 한결같이! 결코 이 화환을 목에서 벗지 말아라. 아버지 목둘레의 화환으로 남아 있어라. 둘째로, 끊임없이 봉사함으로써 너희는 남들을 아버지 목둘레의 화환의 일부로 만든다. 이것들이 두 개의 화환이다. 따라서 그것을 축하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 즐겼고, 그것을 지켜본 자들도 그들 스스로 즐겼다. 그래서 바바가 너희에게 이 축하행사 이면의 중요한 의미를 알려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축하한다는 것은 너희의 열성과 열의를 늘린다는 뜻이다. 밥다다는 각자의 경험을 보았다. 너희는 좋은 경험을 했다. 행복과 도취감이 각자의 얼굴에서 보였다. 단순히 너희의 형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미소를 짓고, 진지하고 성숙하면서도 가볍고 재미있어져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들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자들은 훨씬 적다. 너희를 보며 경험을 가지는 자들이 더 많다. 너희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너희 얼굴에서 아버지를 소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좋았다. 밥다다도 이 모든 것을 보며 행복하다. 이번 시즌은 축하행사들의 특별한 시즌이었다. 모든 것이 항시 똑같을 수는 없다.

(밥다다가 반복 훈련을 인도하심.) 너희 모두가 통치하는 힘을 가졌느냐? 너희가 원할 때는 언제든 자신의 신체기관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자아의 주인이 되었느냐? 오직 자아의 주인인 이들만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분위기가 어떻든 너희가 마음과 지각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면,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그것들을 멈출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느냐? 너희 각자는 하루종일 필수적으로 시시때때로 이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과 지각이 아주 바쁠 때마다, 그때 너희가 1초 만에 마음과 지각을 멈출 수 있는지 해 보아라. 너희가 “멈춰!”라고 생각할 때, 그것들을 멈추기까지 3초나 5초가 걸리게 해서 안 된다. 이 훈련은 마지막에 너희에게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은 우등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앗차.

진심에서 우러난 열성과 열의로 변함없이 축하하며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생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자기 경험을 토대로 특별한 권위자인 영혼들에게, 얼굴로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를 소개해주는 봉사할 줄 아는 영혼들에게, 한결같이 진지하고 성숙함과 가볍고 재미있음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축복받을 권리를 가진 영혼들에게, 이 나라와 외국의 온 사방에서 온 자녀들 모두에게, 쉬브 라트리에 즈음해 많고도 많은 축하를 보내니 부디 받아다오. 마음의 위로자인 딜아람 밥다다가 보내는 진심 어린 깊은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떼도 역시 받아다오.

축복: 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 너희 모습과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 모습을 의식함으로써 모든 보물로 가득한 공여자가 되어라. 한결같이 “나는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며 남들에게 주는 공여자다. 나는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 공여자다.”라는 의식을 유지해라. 아버지가 너희 모두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서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고 계속 주어야 한다.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너희의 형태와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 모습에 대한 의식을 계속 유지해라.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형상 앞에 가서 뭔가를 달라고 빌거나 보호해 달라고 청한다. 그래서 너희는 보호해 달라고 울부짖는 자들이 아니라, 보호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공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봉사함으로써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 등의 모든 보물로 가득해져라.
슬로건: 너희의 행동과 얼굴에서 보이는 행복은 영적인 인격을 나타내는 징표다.

***** 옴 산티 OMSHANTI *****